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대안

# 익산 북페스티벌 '팡파르'

‘드라이브인 방식’ · 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작가 강연, 多e로운 독서동아리 이야기, BOOK面가왕 등 다채

익산시를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 '2020 익산 북페스티벌'이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과 대면을 최소화한 '드라이브인 방식'과 익산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는 21일 이번 북페스티벌에서 '책향기로 탐을 쫓다'를 주제로 작가 강연 및 공연, 체험 등 19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슬아, 김겨울, 감동식, 김민섭, 정도상 작가의 온라인 강연과 '2020 익산시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어디서 살 것인가'의 유현준 작가의 강연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 방식'의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사전 신청을 통해 KIT를 받은 200가족의 참여자가 유튜브로 제작 과정을 보며 참여할 수 있는 '방구석 체험'과 인상 깊게 읽은 책의 내용을 가면으로 제작해 가면을 착용하고 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한 '북면가왕'은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작된 영상은 '2020 익산 북페스티벌' 기간 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드라이브인 독서콘서트' 등 비대면으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多e로운 독서동아리 이야기', '우리동네 책방 이야기'는 독서동아리 회원들과 지역독립서점 운영자들이 함께 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이다. 이들과 함께 독서동아리 활동 이야기, 독립서점 운영 이야기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서관 자원봉사를 통해 사서지 공무원, 그림책 작가 등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주MBC 여성시대'는 24일 토요일 방송 예정이다. 장현을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비대면 형식의 대안을 찾아 추진할 이번 북페스티벌은 코로나19 시대의 모범적인 축제 모델을 제시하며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익산 북페스티벌 홈페이지([http://lib.iksan.go.kr/book\\_festival](http://lib.iksan.go.kr/book_festival))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ksan.go.kr>)를 참고하거나 모현도서관 ☎ 063-859-3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희 기자

## 28일 '대한민국 판놀음' 개막

국립민속국악원서 내달 21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제2회 대한민국 판놀음을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한다. 판놀음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의 창작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발발창극,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판소리 완창무대를 감상할 수 있고, 명인·명창·명무가 함께 참여하는 폐막공연으로 마무리한다. 개막일인 28일은 국가무형문화재 11-8호 남원농악보존회 남원농악·판곡을 유튜브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작은창극 춘향-봄날, 사랑 노래를 만날 수 있다. '발발창극'에서는 31일 전주문화재단의 '변사포 생일잔치', 11월4일 남원시립국악단의 '시르렁 실렁 톱질이야', 11월 11일 판소리공방 바다소리의 '경성스케이터', 11월 14일 제이유(JU)창극발전소의 '내 이름은 사방지', 11월 18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보

존회의 '창작연희극-히하냥락'을 만날 수 있다. 각 바탕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공연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 명의 중견 명창과 세 명의 젊고 기량이 있는 소리꾼이 11월 5일 김주리의 춘향가, 11월 6일 영경애의 수궁가, 11월 12일 김나영의 심청가, 11월 13일 정운형의 적벽가, 11월 19일 박애리의 심청가, 11월 20일 조수황의 흥부가를 감상할 수 있다. 폐막공연은 명인, 명창, 명무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펼치는 '명불허전'에는 강정숙, 김부길, 김영자, 신영희, 왕기석, 정화영, 조흥동, 채상목 명인들이 출연하는 가·무·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예원당 150명, 예음헌 50명으로, 21일부터 가능하고, 전화(063-620-2324~5) 또는 카카오톡(국립민속국악원 친구 추가)로 하면 되고,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won.gugak.go.kr>),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블로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 도내 예술인 의료복지 위한 '첫걸음'

전북예술인복지센터-예수병원, 협약 체결... 광역재단 최초 의료비 지원



전북예술인복지센터는 21일 예수병원과 병원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와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전라북도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환경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전라북도 예술인 의료복지 기여와 예술창작활동 발전을 도모 ▲교류 협력을 통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경쟁력 확보 ▲전라북도 문화예술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한다. 특히, 예술인 의료비(검진비·치료비 등), 장

례지원비에 관한 지원은 전국 광역재단 최초 시행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받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에 자긍심이 높은 지역이다"며, "우리 병원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지역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1~23일과 26일 등 총 4일간 전북 4개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진행한다.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 26일까지 '찾아가는 소리축제'

조직위, 남원 송동초·익산 이리계문초 등서 행사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1~23일과 26일 등 총 4일간 전북 4개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소리축제'는 소리축제 위원회와 전북도교육청이 협력해 진행하는 6년 차 미래 관객 육성 프로젝트다. 올해는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찾아간다. 이는 전북 도내 문화 소외 지역을 방문해 문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학교 현장을 찾아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추진된다. 이날 남원 송동초를 시작으로 22일 익산 이리계문초, 23일 군산 선유도초·중, 26일 임실

성수초에서 각각 행사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아동·청소년 극단 브러쉬 씨어터의 '두들깁'으로 낙서와 스크린 아트 등이 결합한 매직 드로잉 가족극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재전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는 고심 끝에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전북 4개 지역으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의 문화 향유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후백제 역사 조명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II... 총 3부로 구성

국립전주박물관은 10월 27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개관 30주년 특별전 II '전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대국가의 도읍이었던 전주와 전북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영호남 교류라는 시대적 요구의 역사적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전환의 활약과 그가 건국한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1부 '화무십일홍, 영웅 탄생'에서는 후백제의 연호, 正開(정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승탑(전북 유형문화재 제247호)을 1:1 크기로 복제 전시하고, 삼국사기 및 조선시대 삼주지도에서 역사적 인물로 기록돼 있는 전환의 모습을 보여준다. 2부 '전환, 그 꿈의 시작'은 전환의 웅기와 초반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환은

청년기에 지금의 광양·순천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전남 광주에서 처음 나라를 선포한다. 이와 관련된 광양 마로산성과 광주 무진고성에서 출토된 옛 백제의 지명(馬老官, 마로관)이 찍힌 기와, 희귀한 청동거울, 봉황과 도깨비 무늬의 기와 등이 주로 전시된다. 3부 '전환, 새로운 시대를 열다'의 주요 전시품은 길이가 80m에 이르는 전주 동고산성의 대형건물지에서 출토된 '술州城(전주성)'이 새겨진 기와들과 전북지역 최대 집수시설이 조사된 장수 침령산성의 유물들이다. 특히 침령산성에서는 글씨가 남겨져 있는 자물쇠와 목간이 발견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백제의 왕실 사찰로 논의되고 있는 원주 범방사지 출토 석조 삼존불상의 본존불은 이번에 최신의 3D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정교하게 복원된 전시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식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인증서 제2019-5-9297호

### 익산농협 떡 방앗간

조합원이 생산한 국내산 쌀, 팥 등을 이용하여 정성껏 만듭니다.

**떡찰떡**  
1말 ..... ₩ 110,000원

**노랑콩시루떡**  
1말 ..... ₩ 100,000원

**호박흑임자인절미**  
1말 ..... ₩ 140,000원

**팥시루떡**  
1말 ..... ₩ 90,000원

**절편**  
흰떡 ..... ₩ 40,000원  
쫄떡 ..... ₩ 80,000원

**떡찰떡**  
1말 ..... ₩ 150,000원

**신대리찰떡**  
1말 ..... ₩ 100,000원

**떡찰떡 세트**  
1box ..... ₩ 30,000원

※ 상기 메뉴 이외에도 각종 떡 주문 받습니다.

익산시 인북로 6길 58 (인화동 2가) **주문전화 063)840-1845**  
 익산농협 하나마트 (뒷편 위치)   
 계좌번호 : 351-8400-1845-63  
 예금주 : 익산농협 떡 방앗간